

“항불로 태운 한지 접점이 쌓는 일은 명상의 과정”

27년만에 고향 전시 갖는 김민정
광주시립미술관 '비움과 채움' 전

인터뷰 약속보다 일찍 도착해 전시실을 둘러보는데, 작품 앞에 모여 열심히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우연히 현장에서 김민정 작가를 만난 관람객들과 이뤄진 '즉석 설명회'였다. 대화가 끝나길 기다렸다 작가와 작품을 둘러보며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관람객들은 여전히 듣고 싶은 게 많으니 '다시' 이야기를 들었다. 김 작가의 작품은 그렇다. 볼수록 궁금증이 일고, 자주 질문을 던지게 하고, 한참 동안 머물며 사색에 빠지게 만든다. 그녀의 작품은 '꼭' 현장에서 관람해야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해외유명작가초대전 '김민정-비움과 채움' 전(11월 25일까지)은 김민정(56) 작가가 1991년 이탈리아로 떠난 뒤 27년만에 고향에서 갖는 전시다. 지난 봄 영국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은 '일편'을 기록했다. 대영박물관, 미국 아시아사사이어티에 작품이 소장되었으며 아시아 사사이어티와는 2020년 개인전도 추진중이다. 지난해 서울 현대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그녀는 프랑스 니스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천년 도시 상 폴 드방스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1년에 두 달은 뉴욕 작업실에 머문다. 27년만의 귀환. 그녀는 들떠 있었고, 고향의 '환대'에 감사해했다.

"한지, 불, 먹"은 그녀 작품의 키워드라 할 수 있다. 그녀는 한지를 작게 오려 일일이 항불로 태우고, 태운 그늘음이 자유분방하게 표현된 한지 조각을 물처럼 푼 풀에 동등 띄운 후 핀셋으로 집어 포개고 겹쳐 작품을 만든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처럼 수없이 반복해서 작업하면 요령도 생긴다"며 대수롭지 않게 그녀는 말하지만 그 공력을 생각하면 아득하다. 300호가 넘는 대작을 가득 채운 수천개의 한지 조각. 그 '노동'에 경외감이 느껴진다. 그녀의 작품은 얼핏 멀리서 보면 기하학적 무늬가 반복된 회화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신세계'가 펼쳐진다.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양과 인쇄, 그리고 물입의 정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쓴 화이트 큐브 캐서린 코스티알의 말이 심분 이해된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한지회화 작품 24점이 내 걸렸다. 3차원 느낌이 강한 '조각'을 비롯해 '거리', '산' 등 그녀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시리즈들이다. 인터뷰 중 '한참을 머물게하고, 가까이 다가가 화폭을 유심히 살피게하는 작품들'이라 했더니 언젠가 평론가 장 크리스토프 아랑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들려줬다. "민정아, 소리 치는 작품, 크고(규모를 지칭하는 건 아님) 시끄러운 작업을 하지 말고 작으면서도 울림있는 작업을 해라.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작품을 해라." 그녀는 그 말을 늘 가슴에 새겼다.

동신여중, 송원여고를 졸업한 김 작가는 홍익대 동양학과를 거쳐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강익중 작가가 동이다. 그녀는 1991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초대전 '비움과 채움' 전을 열고 있는 김민정 작가가 대표작 '산' 시리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동양화 전공 뒤 1991년 이탈리아 유학길... 프랑스 등서 작업
대영박물관 등에 작품 소장...미국 애틀랜타사사이어티 개인전 추진
수 천개 한지 조각 포개 작품 등 다양...30일 관객과의 대화

년 이탈리아 유학길에 오른다. 젊었던 이른 나이의 결혼으로 얻은 두 아이를 놓고 떠난 결정이었다. 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던 가정사에서 선택은 하나 뿐이었다. '그림'. 살레시오 초등학교 시절 첫 스승이었던 수채화가 강연준 선생은 어린 그녀를 '김선수'라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교육열이 높았던 엄마에게서도 늘 칭찬을 받았다. 스스로 인생에 실패했다고 느낀 그녀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림'이었다. 이탈리아로 떠난다는 그녀에게 '마지막 빨치산'이었던 엄마는 말했다. "가서 오지 마라. 니가 생각하는 작가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한지를 가득 안고 이탈리아에 도착한 날 그녀는 마음 속으로 외쳤다. "여기서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는 자신의 작업 소재인 '한지'에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인쇄소를 운영했다 터라 종이는 그녀에게 친숙한 존재였다. 이불집을 했던 어머니는 조각보를 잘 만들었다.

"결국 사람은 자신과 익숙한 것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늘 종이를 가지고 놀았거든요. 한지에는 장인의 숨결이 담겨있어요. 한지 자체가 장인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한지가 갖고 있는 성격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한지라는 한정된 재료로 작업하는 게 더 즐겁고 매력적이에요. 다

양한 식재료로 밥상을 차리는 것도 좋지만 된장 하나만 이리저리 활용해 만들어진 밥상도 맛갈스러운 것처럼요."

칸딘스키와 클레의 작품을 좋아하는 그녀는 '선(線)'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나의 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졌어요. '선'에는 작가의 모든 것이 드러나거든요. 한지를 태우며 불이 만들어내는 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죠. 항불을 쓸 때는 제 숨 하나도 영향을 미쳐요. 마음의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구요. 일일이 자른 한지를 항불로 태우고 불이는 작업, 이게 수련의 과정이고 잡념을 없애는 과정이고 명상의 과정이에요. 무아의 지경이기도 하죠. 저를 위로하고 나에게 솔직해 지기 위해 하는 작업인데 작품을 컬렉션한 이들도 제 작품에서 똑같은 기운을 느끼고 위안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요."

이번 전시작 중 그녀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시리즈인 '단계적 조정'은 붓에 먹을 묻혀 공중에서 자유롭게 떨어진 자국과 한지를 활용해 제작한 작품이다. 또 다초점으로 보여주는 '밤', 단색의 색채만 활용, 농담을 달리해 점점이 칠한 '산' 시리즈도 인상적이다. '산' 연작은 그녀가 유럽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작품이다. 그녀는 특히 유럽 화랑 등을 통해 작품을 팔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주목받게 된 건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출신 '단색화'의 무서운 할아버지들 덕'이라며 웃었다.



한지를 여러 항불로 태운 후 일일이 포개 '밤'.

오전 6시면 눈을 뜨는 그녀는 1시간 작업을 하고 산책을 한 후 동네 할머니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차 한잔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함께 살며 일을 도와주는 이들에게 요리를 해주는 시간이 가장 여유로운 때고,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 '라구'는 가장 좋은 친구다.

아마도 전시를 보고 나면 그녀의 작업 방식에 대해 궁금증이 일터다. 인터뷰 등이 담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된다. 전시 개막식은 30일 오후 5시 오후 8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문의 062-613-7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프라노 남영숙 소프라노 유덕희

인생 황혼기의 도전

30일 금호아트홀 실버콘서트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이들이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65세 이상 아마추어 음악인이 무대에 서는 금호실버콘서트가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참여 연주자는 65세부터 88세까지 교사·사업가·회사원 등을 지낸 7팀 24명으로 구성됐다. 소프라노 고재경이 '내 사랑 망초여'를 부르고 소프라노 유덕희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의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낸다. 소프라노 남영숙·양복선과 테너 양승현도 각각 2곡을 가지고 무대에 오른다. 강연순·김란희·김선숙 등 10명으로 구성된 늘 푸른 중창단이 하모니를 선보이고 김동섭씨가 이끄는 북평국악동호회는 무형문화재 김연화 명창과 '합복과 함께하는 토끼와 별주부 이야기'를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금호주니어콘서트, 금호시니어콘서트 등 다양한 연주회 기획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연주자들이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람료 5000원으로 당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문지행 시민인문학 9월 5일 개강

인문지행 하반기 시민인문학 강좌가 오는 9월 5일부터 12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일상을 바꾸는 저항의 인문학'으로 명화 감상을 비롯해 철학에서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강연을 들을 수 있다.

강의는 '일상의 변화와 저항의 가치' (박해운 철학박사), '세 여자 그리고 나, 김지영' (김현 전남대 강의 교수), '명화로 본 저항 정신'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4·16은 무엇을 변화시켰나' (지정남 방송인) 등을 주제로 9회 진행된다. 또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제주 4·3의 백비(百碑)의 의미', 이윤영 동학기념관장의 '농민 저항과 동학의 역사', 송경동 시인의 '시인의 버스,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특강이 이어진다. 일반 강의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특강은 토요일(9월 15일, 10월 13일, 11월 17일) 열린다.

10월 28일에는 황도현 전적지와 전주 동학혁명 기념관 답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강의는 동네 책방 '심가네 북씨' (광주시 동구 동명로)에서 열린다.

강의와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며 답사에 한해 소정의 참가비가 있다. 문의 062-229-068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 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